

기 위해 "혼신"

지난해 '대통령 산업포장' 수상



◇자생약초 서식지 답사.



◇95년 3월31일 우리생약살리기운동본부 헌판식.



◇국내생약농업육성방안에 관한 농민들과 간담.



◇하계수련대회.



◇95년 5월 중앙공판장을 국산한약재 상설매장으로.



◇증면된 생약보를 놓고 의견을 나누는 농민들.

과하던 농민회원을 1만5천명으로 배가 함으로서 국내 유일의 생약재배 농민단체로서의 자리군함과 더불어 회세신장에 기여해 왔다.

품목별 하한가 계약재배 국내생산기반 마련에 최선

수석부회장으로 있던 지난 91년 부터 94년 까지는 개량 삼도시호를 계약재배 (91년 718농가 48t 수확, 92년 1200농가 95t수확, 93년 2,339농가 195t 수확 94년 2,476농가 102t수확), 일본으로 전량 수출함으로써 농가소득증대는 물론 생약 생산 농가의 재배의욕을 고취시키는데 기여해 왔다.

또한 생약재배농가와 품목별 하한가 계약재배를 실시(94년 황기 247농가 182t 수확, 백출 69농가 133t 수확, 지황 30농가 90t 수확, 95년 황기 245농가 210t 수확 백출 127농가 80t 수확 지황 725농가 275t 수확, 96년 황기 25t,

지황 20t 수확) 수매함으로써 국내 생 산기반을 다지는데 최선을 다해 왔다.

생약보증면으로 홍보강화 국내 생약농업 비전 제시

이회장은 또 생약재배 농민은 물론 공 업공무원을 대상으로 생약재배기술 및 수입개방화시대 생약농업의 육성방안과 생산능가 보호차원의 약용작물 유통개선 방안등을 주제로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국내 생약인들의 나아갈 비전을 제시하 고자 주력해 왔다.

특히 생약협회에서 발행하는 본보를 기존 4면에서 8면으로 증명하면서 생약 재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국산한약재 상설매장을 이용하는 소비자 회원에도 생약보를 무료 배포, 우리 생약 재의 우수성 홍보에 다각도로 최선을 다 해 왔다.

〈문정희 기자〉

생약협회 97년 사업계획(안)

국내 생약재 전시포 설치

- 장소:경기도 일원
- 규모:40,000평 예정
- 품목:황기, 당귀, 천궁, 백지, 방풍, 강활, 고본, 하수오, 백출, 황금, 자초, 지황, 민삼외
- 전시포 설치에 따른 자금지원 요청(관련부처)

산학 협동으로 품종개량 및 재배방법 개선

- 대상:생약연구위원회의 주도로 농촌진흥청 및 대학 연구소에 무상 또는 유상 용역 의뢰
- 품목:지황, 당귀, 황기, 천궁 등

1지역 1품 운동전개로 경쟁력 강화

- 대상:전지역
- 품목:지역별 기후, 토질등을 고려하여 특작물 선정
- 방법:선정 품목 등록제를 실시하여 우선 지원 및 판매
- 홍보:언론매체를 통한 특작물 홍보 및 전문 가공업체 연계

계약재배 및 계획 생산 유도

품목	지역재배	재배면적 (ha)	생산예정 (M/T)	비고
황기	포천, 연천, 이천	100	180	내수용
백출	경기, 경북, 충북	20	-	3년차 재배
지황	전국	50	300	내수용
복령	전남	5	-	시험재배
감초	충남	2	-	시험재배
계		177	480	

지역 특작목 사업지원자금 (생약부문)활용강화

- 1997년 농림부 배정액(각 군과 긴밀한 협조로 기존 배정자금 활용방안)
- 1997년 도별 지원 계획 강원도 5개, 충북 3개, 충남 2개, 전북 3개, 전남 5개, 경북 6개, 경남 1개소
- 지원규모:표준사업 전량 수출품목 개발 및 육성
- 대상품목 및 전지역 인삼(포천), 천궁(울릉, 영양, 거창), 지황(전국), 백출(경기, 경북, 충북), 작약(의성, 보성, 임실), 하수오(경북), 목단(보성)

국산생약 사용에 대한 홍보강화(제조업체 및 관련단체)

- 대상:계약회사, 식품회사, 한의사 협회, 한약도매협회 등
- 품목:국제 생약재 전체
- 방법:국산생약 사용을 라벨, 카톤에 표기토록 관련부처와 협의 및 방문 설명회

생약재를 이용한 제품개발 연구

- 대상:한국식품개발연구원, 각 회 사 연구소

- 품목:황기, 당귀, 하수오, 두충, 황정, 천궁, 오미자, 갈근, 음양곽 외
- 방향:차, 음료, 정과, 과자, 천연조미료, 술, 캔디 등

상설전시 판매장 추진

- 장소:서울, 경기 일원
- 규모:대지 300여평, 건평 600평 (지하1층, 지상3층)
- 용도:생약재 비교전시장, 상설판매장, 교육장 등
- 예산 및 시기:정부와 지원, 용자 협의, 모금, 별도의 재원출원등 협의 완료 시점.

제4회 우수국산한약재 전시회 개최

- 시기:1997년 11월 초순
- 장소:교통이 편리한 옥외
- 기간:7일~10일정도
- 규모:지역별 또는 품목별 전시과 설치로 전시 및 판매
- 예산:정부지원 교섭 및 추후 책정

생약 가격안정기금 조성 및 유통개선

- 안정기금 관리 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
- 안정기금 조성 및 사용계획:별도 운영

-1996년 결산 보고서 참조
자생약초 서식지 답사 및 채집 실습

- 시기:1997년중
- 장소:경기도, 강원도, 충청도 일원
- 인원:약 250여명
- 대상:소비자회원 위주

생약의 우수성 및 활용에 관한 학술지 출판

- 협회 기관지(한국생약보)의 효율적 활용
- 생약재배 교육 교재 발행
- 생협 30년사 발간(자료준비)
- 약용작물도감 발간(자료준비)

제3회 하계수련대회 개최

- 시기:1997년 8월초
- 대상:분사무소장 이사(공판장장 포함)
- 인원:약 200여명
- 내용:생약유통현황, 품목별 개발 기술(도별 분임토의 후 주제발표)

지방자치제와 특화사업에 따른 조직개편 및 강화

- 교통 및 생활권역을 고려한 조직개편 방안
- 능률적인 지역별 특화사업을 위한 조직 강화 방안
- 조직개편 위원회를 구성하여 시안을 마련 후 결정

우리생약 살리

국내생산농업육성 공 인정받아

지난 91년 수석부회장을 거쳐 94년 3월31일 정기총회에서 제10대 생약협회장으로 만장일치 추대된 이종용 회장은 남다른 신념으로 우리생약살리기 운동을 추진, 범국민운동으로 활성화시킴으로서 생약재배 농민단체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

특히 뛰어난 사업구상력과 추진력을 발휘 협회장으로서 왕성한 대외활동은 물론이고 △우수국산한약재 전시회 개최 △국산한약재 상설매장 개설 △자생약초 서식지 답사 등 다채로운 행사를 통해 어느 역대 회장보다도 회세신장과 위상강화에 크게 기여해 왔다. 이회장은 또 국내생약농업육성과 생산자·소비자 보호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지난해 12월 31일 정부로부터 '산업포장'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기도 했다. 지난 3년동안 이종용 회장이 추진했던 우리생약 살리기 사업내용과 왕성한 활동사항들을 소개한다.

〈편집자주〉

우수국산한약재 전시회 개최로 품질우수성 홍보

국산생약재가 품질의 우수성에도 불구하고 수입개방화로 인한 값싼 수입약재의 범람으로 생산기반을 침해당하고 있는 국내생약농업의 현실을 타개해 나가 고자 이종용회장은 부임직후부터 우리생약살리기 운동을 의욕적으로 전개해 왔다. 우리 생약 살리기 그 일환으로 지난 94년 최초로 국내 최대의 한약재 직거래 장터인 「우수국산 한약재 전시회」행사를 고안 개최함으로써 사단법인 한국생약협회가 명실공히 국내 유일의 약용작물 생산자단체로서의 위상과 면모를 갖추는데 기여해 왔다.

자연산(희귀약초)을 포함 2백여 종류의 국내 재배약초가 다양하게 전시 판매되는 우수국산한약재 전시회는 국내 생산농가의 판로확보와 양질의 생약재 공급으로 생산자와 소비자들의 큰 호응속에 매년 1회 개최되고 있다.

국산한약재 상설매장 개설 양질약재공급, 비교전시도

생약협회 중앙공판장이 국산한약재상설매장으로 거듭났다.

이종용회장은 생산농민들이 직접 재배한 질 좋은 국산약재를 소비자와의 직거래를 통해 보다 저렴하게 공급함은 물론 소비자들로 하여금 질 좋은 국산약재를 믿고 구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국내 최초의 국산한약재 전문 매장을 개설, 시중의 「국산한약재 전문매장 설립 붐」을 선도하기도 했다.

또한 소비자 보호차원에서 수입산과 국산을 직접 보고 구분할 수 있도록 매장 내에 수입국산 비교전시 코너도 마련하는 한편 생약재를 이용한 약떡, 약차를 개발 홍보함으로써 국산약재의 수요 창출에도 노력해 왔다.

규격화 정책토론회 참가 생산농가 권익대변 앞장

보건복지부의 한약 규격화정책 시행에 따라 제조업소 이외에는 가공 포장해서 판매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한약 관리규정의 모순 및 문제점을 지적, 생약 생산 농가의 기존판로를 보장해 줄 것을 건의 주장(94년 11월 9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열린 「한약관리규정 제정고시를 위한 정책협의회」에서, 96년 7월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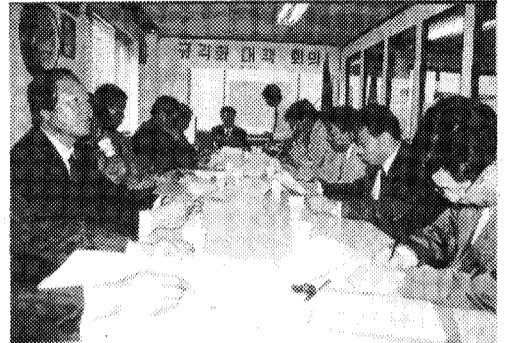
◇지난해 12월31일 정시채 농림부장관으로 부터 대통령 산업훈장을 수여 받고 있는 장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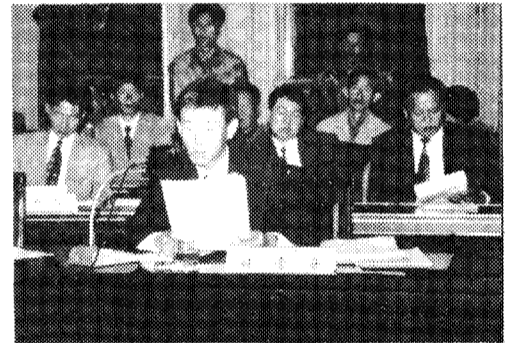
◇제3회 전시회때 강릉태 농림부장관과 전시장방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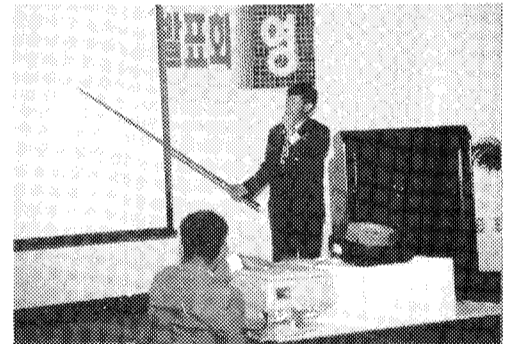
◇개발농지황시행모임.



◇협회사무국에서 규격화대책회의.



◇94년 11월9일 한약규격화 정책토론회서 생산농가 권익 대변.



◇농업공무원 대상으로 교육 실시.

일 열린 「한방의료발전방안 정책토론회」에서)함으로써 생산농가나 단체가 단순 가공 포장한 한약재를 관행대로 자유롭게 판매할 수 있도록 한다는 부칙조항을 신설케 하는 성과물을 획득하는 등 생산농가의 권익대변에 앞장서 왔다.

또한 전국 생산농가 대표로서 한약재수급조절 위원회에 참석, 국내 생산농업의 실정을 알리고 무분별한 수입약재의 반입에 제동을 거는 국내 생약농업의 파수군으로서 말은바 직분에 최선을 다해 왔다.

지황 국내 자급을 목표로 다수확우량품종 육성 보급

지황 우량품종 육성 보급도 이 회장의 임기중 주력했던 사업의 하나다.

70~80년대만 하더라도 국내자급은 물론 수출까지 해 오던 국산 지황이 수입산에 밀려 생산기반을 상실한채 9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해 오고 있는 현실속에

서 지황종근 다수확품종을 도입, 시험재배를 거쳐 지난 95년 본격적으로 농가에 보급 계약재배를 실시했다.

기존의 재래종보다 4~5배 많은 다수확품종의 지황을 생산해 냄으로서 생산성 향상과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함은 물론 지황의 국내자급을 목표로 생산기반 마련에 최선을 다해왔다.

무분별한 엑스제수입 반대 밀수약재 근절에도 주력

각 제약사들에 공문을 보내 무분별한 수입엑스제 사용 자제를 촉구하는 한편 수급조절품목임에도 식품으로는 무한정 수입을 허용하고 있는 제도적 모순을 지적 정부에 건의하는 등 국내 생산농가 보호를 위해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특히 지난 96년 6월에는 적발된 밀수황기 70t에 대한 공매입찰을 반대 유보시키기도 했다.

이처럼 이종용 회장은 재임 3년동안

국내생약농업육성에 대한 남다른 신념 갖고 우리생약살리기 사업을 일관성 추진해 왔다.

자생약초서식지 답사 등 행사로 회세신장 위상강화

이회장은 우리생약살리기 운동을 민운동으로 확산시켜 나가고자 큰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 일환으로 약초주말농장 개설, 무료 건강강좌, 자생약초서식지 답사등을 통해 국산약재의 우수성 홍보 물론 소비자들의 우리생약살리기 참여 유도, 소비자와 생산자가 더불어 참여하는 우리생약살리기 운동을 추진해 왔다.

또한 우수국산한약재 전시회와 한약전시회 개최등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하는 장을 마련, 생약인으로서의 긍지와 회원 상호간의 결속을 다지는 데도 힘썼다.

특히 생산회원 및 중앙회원의 권익 보호를 의욕적으로 추진, 기존에